

고전시가 작품

8. 한국 문학의 빛깔

고창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향가>

열어젖히니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좇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새파란 냇물에
기랑(耆郎)의 모습 있어라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에 끝을 따르고자
아으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르올 화반(花判)이여,

-총담사 <찬기파랑가> (양주동 해독)

<고려가요>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딕 아즐가 닷곤딕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버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딕 아즐가 괴시란딕 우러곰 좇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썬 아즐가 긴히썬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즈므히를 아즐가 즼므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널 빅예 아즐가 널빅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작자미상, <서경별곡>

<가사1 >

사미인곡 -정철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닛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막음 이 스랑 견줄 뒤 노여 업다.
 平生(평싱)애 願(원)하요뒤 혼뒤 네자 하얏더니,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뵈셔 廣寒殿(광한뎌)의 올났더니,
 그더뒤 엇디하야 下界(하계)에 느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디 三年(삼년)이라.
 胭脂粉(연지분) 잇네마는 놀 위하야 고이 흘고.
 막음의 므친 설음 疊疊(텃텃)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人生(인싱)은 有限(유한)하뒤 시롬도 그지 업다.
 無心(무심)하 歲月(세월)은 물 흐르듯 하노고야.
 炎涼(염냥)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터내니,
 窓(창) 밧기 심근 梅花(미화) 두세 가지 피여세라.
 곱득 冷淡(닝담)하뒤 暗香(암향)은 므스 일고.
 黃昏(황혼)의 둘이 조차 버마퓌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花(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뒤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陰(녹음)이 싹렸논뒤,
 羅幃(나위) 寂寞(적막)하고, 繡幕(슈막)이 뷔여 있다.
 芙蓉(부용)을 거더 노코 孔雀(공작)을 둘러 두니,
 굿득 시롬 한뒤 날은 엇디 기뒸던고.
 鴛鴦錦(원앙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식선)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 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手品(슈품)은쿠니와 制度(제도)도 2줄시고,
 珊瑚樹(산호슈) 지게 우히 白玉函(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뒤 바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里 萬里(천리 만리) 길흘 뒤라셔 촛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김의 기려기 우러 널 제,
 危樓(위루)에 혼자 올라 水晶簾(수정념) 거든 말이,
 東山(동산)의 돌이 나고 北極(북극)의 별이 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光(청광)을 쥐여 내여 鳳凰樓(봉황누)의 붓티고져.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荒(팔황)의 다 비최여,
 深山窮谷(심산궁곡) 점났7티 잉그쇼서.
 乾坤(건곤)이 閉塞(폐식)하야 白雪(백설)이 흐 빗친 제,
 사롬은 쿠니와 놀새도 굿쳐 있다.
 蕭湘南畔(쇼상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樓高處(옥루고처)야 더욱 닐러 므슴흐리.
 陽春(양춘)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뒤 쏘이고져.
 茅簷(모첨) 비천 히를 玉樓(옥루)의 올리고져.
 紅裳(홍상)을 니의 초고 翠袖(취슈)를 半(반)만 거더,
 日暮脩竹(일모슈죽)의 헝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燈(정등) 거른 것티 鈿空篔(연공후) 노하 두고,
 솜의나 님을 보려 퍽 밧고 비겨시니,
 鴛鴦錦(양금)도 초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샅고.
 흐르도 열 두 때 흐 돌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롬 닐자 흐니,
 尺蠖의 밧쳐 이셔 骨髓(골슈)의 썩터시니,

扁鵲(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흐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어 범나빅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딩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날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샤도 내 님 조츠려 흐노라

누항사 -박인로

<p>어리고 우활(迂闊)홀산 이 님 우히 더니 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늘기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김푼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셔 흡 밥 닷 흡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식일 썬이로다. 생애 이러흐다 장부(丈夫) 쏫을 움길넌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흐니 날로 조차 저어(齟齬)흐다. ㄱ올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흐며, 주머니 뷘엇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랴. 빈곤(貧困)흔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흐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느가. 분의 망신(奮義忘身)흐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 우량(于橐于囊)의 줌뽀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p>	<p>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로는 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길흉화복을 하늘에게 맡겨 두고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 놓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짚이 딸감이 되어 세 흡 밥 다섯 흡 죽을 만드는 데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덜 데운 송늑으로 곱은 배를 속일 뿐이로다. 생활이 이렇게 구차하다고 한들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안빈낙도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을에도 (생활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생활이)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겨 있으랴.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래.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고 한들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의에 분발하여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죽고야 말겠노라고 마음먹어 전대와 망태에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전란 5년 동안에 용감하게 죽고 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p>
---	---

이시섭혈(履尸涉血)하야 몇 백전(百戰)을 지니연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라.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젓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싹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논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닌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타 하
리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들 어니 쇼로 갈로손고.

한기태심(旱既太甚)하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늙흔 논애 잠깐 긴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싼 뒤혀두고,

쇼 흔 적 듀마 하고 엄섬이 하느 말삼

친절(親切)하라 너긴 집의 돌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
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하온 후(後)에,

어와 그 뉘신고 엄치(廉恥) 업산 닌옵노라.

초경(初更)도 거윈디 그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하기 구차(苟且)흔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애 헤염 만하 왓삼노라.

공하나 감시나 주엄 즉도 하다마는,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가 몇백 전쟁을 치렀던가.

내 몸이 겨를이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늙은 종은 종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는데,

봄이왔다고 나에게 일러 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한다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에 맞는 줄을
알겠도다.

잡초 많은 들에서 밭 갈던 늙은이(은나라의 이
윤)과 밭두둑 위에서 밭 갈던 늙은이(진나라의
진승)을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마는,
아무리 갈려고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가뭇이 몹시 심하여 농사철이 다 늦은 때에,

서쪽 두둑 높은 논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흐르는 물을 반쯤 대어 놓고는,

‘쇼 한번 빌려 주마.’하고 영성하게 하는 말을
듣고,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에헴’ 하는 인기척을 꽤 오래도록 한 후에,

“어, 거기 누구신가?” 묻기에 “엄치없는
저올시다.”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무슨 일로 와 계신고?”

“해마다 이러기가 구차한 줄 알지마는,

쇼 없는 궁핍한 집에서 걱정 많아 왔소이다.”

“공짜로나 값을 치거나 간에 주었으면 좋겠지마
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름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허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넌고.
 내일(來日)로 주마 허고 큰 언약(言約) 허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허니 사설이 어려와라.
 실위(實爲) 그러허면 혈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축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기 즈칠 쏘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시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닌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終朝) 추창(惆悵)허야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까운 저 소뉘는 벗보님도 뉘홀세고.
 가시 영긴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려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 흥 꿈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허야 어지버 이저씨다.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에 사는 사람이
 목이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 내고,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갚지 않겠는가?
 내일 (소를 빌려) 주마 하고 굳게 약속을
 하였기에,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당신에게 빌려
 주겠다는) 말하기가 어렵구료.”
 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겠는가?
 현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짚을 뿐이로다.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
 가?
 북쪽 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북돋우는구나.
 아침이 끝날 때까지 서글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
 니,
 즐거워 부르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이 들리는
 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쟁기의 날도 좋구나.
 (소만 있다면) 가시 영킨 묵은 밧도 쉽게 갈 수
 있으련만,
 빈 집 벽 가운데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봄갈이도 거의 다 지났다. (농사일은) 팽개쳐
 던져 버리자.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꾸 지도 오래더니,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아 잊었도다.

침피기옥(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흐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핀 곳애 명월 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흐며 말라 흐라.

다토리 업슬슨 다문 인가 너기로라.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논,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렷스라.

넉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흐건마논

넉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흐 뜻이 온포(溫飽)애논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흐리 닐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렷노라.

저 물가를 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리자꾸나.

갈대꽃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벗이 되어,

임자가 없는 자연 속에서 근심없이 늙으리라.

욕심 없는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라?

다툼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뿐인가 생각하노라.

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뜻과 취향이 있으라마
논, 두어 이랑 밧과 눈을 다 목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내 가난과 천함을 싫게 여겨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짓을 한다고 오겠는
가?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과 상관없이 생겼으랴?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하지마논,

내 삶이 이렇다 해서 서러운 뜻은 없노라.

가난한 생활이지만, 이것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노라.

평생의 한 뜻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
에는 없노라.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와 신의 있게 사귀는 것
을 그르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타고난 대로 살겠노라.